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3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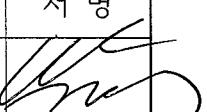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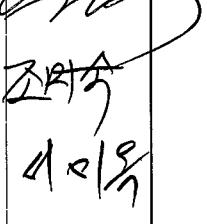
개최일시	2016.1.14(목) 16:00~17:10	회의장소	진관 휴게실
참석자 (8명)	서혁(교무처장), 박선기(기획처장), 석인선(학생처장), 조미숙(총무처장), 이외숙(재무처장), 서미옥(예산팀장), 김혜림(대학원 학생회장), 유혜련(안전회계법인 상무)		
불참자 (5명)	최은혜(학부 총학생회장), 이해지(학부 총부학생회장), 노윤아(자연과학 대학 공동대표), 심지후(동아리연합회 회장), 허성실(사범대학 공동대표),		
안건	2016년 예산(안) 및 등록금 책정(안) 심의		
내용	<p>□ 개회</p> <p>위원장은 13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8명이 참석하여 회의개최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 후, 제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개회하다.</p> <p>□ 회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2016년 예산(안) 및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는 것을 제안하고 재무처의 설명을 요구하다. - 재무처는 지난 회의에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한 조정 사항을 설명하고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하다. 강사법 시행 유예에 따른 교원보수 및 시간강의료를 조정하고, 국가장학금Ⅱ 예산 편성액도 장학복지팀과 협의하여 조정하였다고 설명하다. 2016년 예산 운영수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국가장학금Ⅱ와 재정지원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학부 등록금은 동결, 대학원 등록금은 평균 1.7%의 인상(안)을 제시하다. 등록금 인상분 수입 증가분만큼 기금 인출을 감소시켜 예산 조정(안)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하다. - 교직원 위원은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생들에게 큰 혜택이기 때문에 학교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결을 유지하는 편이 좋겠다고 설명하다. 대학원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은 없으나 대학원 교내 장학금 개편으로 확충되는 장학금이 대학원 등록금 인상분을 상회한다고 설명하다. - 학생 위원은 등록금 인상과 관련하여 부족한 대학원생 사물함, 개인 연구공간 확보 등 학생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줄 것을 요청하며 ECC, 중앙도서관에도 대학원생 사물함 확충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교직원 위원은 현재 학생처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대학원 학생회에서 수요 조사 후 사물함 확충을 요구하면 수용 가능한 공간을 감안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답하다. 단, 중앙도서관 사물함은 총학생회에서 관리하고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하다.
- 교직원 위원은 최근 대학원 연구공간에 대하여 기획처에서 전공별 대학원생 수를 감안하여 전공별 평수를 배정하였으며, 최근 새로 생긴 신설학과 연구공간 배정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이라고 답하다.
- 학생 위원은 교내 신입생 장학금의 경우, 본교 출신 학부 졸업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때 받는 장학금이 대부분임을 언급하며, 타교 출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대학원 장학금 확충계획은 없는지 질의하다.
- 교직원 위원은 대학원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고민 중이며, 타교 출신 대학원생도 입학 후 연구조교나 특성화장학금 등 연구지원 장학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답하다.
- 학생 위원은 교내 근로장학금과 관련하여 근무 시간을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질의하다.
- 교직원 위원은 본교 ~~근로장학금~~ 단가는 최저 임금보다 높으며 국가 근로장학금은 국가에서 근무시간과 지급액을 정하고 있다고 답하다.
- 외부 위원은 현재 누적되고 있는 학교 운영수익 적자 규모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일반 기업이라면 수입증대와 비용절감을 함께 수행하려는 방안을 고민한다고 언급하다.
- 재무처는 등록금 외에 부속기관들의 수강료수입 및 공간사용료 수입 등 기타교육부대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수입에 반영되었으며, 지출에서는 인건비 및 장학금은 증가시킨 반면 일반관리비 및 운영비 등의 비용은 최대한 감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다. 그러나 몇 년간의 등록금 동결, 인하 및 예금이자 감소로 발생한 누적손실을 만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다.
- 교직원 위원은 현실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기는 하나 재무적인 상황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재정지원 사업 및 지표 등

	<p>과 함께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무엇보다 구성원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하다.</p> <p>-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2016학년도 예산(안) 및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하다.</p>
--	---

□ 폐회

위원장은 4차 회의를 1월 21일(목)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확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16년 1월 14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서 혁	서혁	위 원	박선기		
위 원	석인선	석인선	위 원	조미숙	조미숙	
위 원	이외숙	이외숙	위 원	서미옥	서미옥	
위 원	최은혜	불참	위 원	이해지	불참	
위 원	노윤아	불참	위 원	심지후	불참	
위 원	허성실	불참	위 원	김혜림		
위 원	유혜련					
작 성 자	예산팀 이 은 정 (인)					